

중요시되고 있다.

3. 환경문제의 경제적 측면

이 분야에서는 1972년에 채택되었던 「환경정책의 국제경제면에 관한 지침서」라는 권고가 커다란 성과를 전하고 있다. 이 권고는 환경을 오염하는 오염자는 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를 진다는 소위 PPP (polluter pays principle : 오염자부담원칙)를 포함하고 있다. 이 PPP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용을

생산비에 반영시킴에 따라 최소한 환경자원의 합리적인 사용을 도모함은 물론 국제무역에 대한 잘못이 발생할 때 보조금을 금지시키는 것이다.

경제전문가그룹은 이 권고 실시상황의 검토를 하는 외에 환경정책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나 반대로 경제활동이 환경과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을 행하고 있다.

또한 금후는 환경정책이 가진 편익 평가기법의 개발을 행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. *

연 / 구 / 실

공장부근 주택가에 번진 석면공해

폐암·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석면공해가 공장부근 주택가에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 신용철·배남원연구팀이 자동차정비업소와 그 부근 주택가에 대한 석면폭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.

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장에서 약 30m 떨어진 대기에서 cc 당 0.01개의 석면섬유가 검출돼 일반 주민들도 석면공해에 노출된 상태이고, 더우기 cc 당 0.01개는 미국환경청(EPA)이 석면취급사업장의 배출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이다.

이 업소와 가까운 거리에서는 석면농도가 더 높게 나타나 0.5~2m 거리에서는 cc 당 0.21개가 검출됐는데 이는 EPA배출기준을 2배이상 위반하고 있는 양이다.

연구팀은 이번 조사를 위해 서울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 1개소와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업소 4개소 및 근로자 40명의 석면섬유농도도 함께 측정했는데, 연구대상으로 자동차정비업소를 택한 것은 자동차의 브레이크라이닝, 브레이크패드, 클러치페이싱에 석면이 있어 약 6만5천명으로 추

산되는 국내 근로자들과 이웃 주민이 석면에 폭로돼 건강장애를 받을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.

측정 결과, 자동차정비공장 근로자의 석면폭로 수준은 cc 당 0.1개로 우리나라 법적허용기준치인 cc 당 2개와 미국의 법적허용기준인 cc 당 0.2개에 못미치는 상태였다.

반면,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 판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석면폭로수준은 cc 당 0.35개로 우리나라의 허용기준 이하였으나 미국의 기준은 1.7배이상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더욱이 브레이크 수리작업중 압축공기로 먼지를 제거하는 동안에는 우리나라 규제기준치를 초과하는 cc 당 평균 4개, 최고 7개에 이르는 석면섬유가 뿜어져나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.

발암물질을 함유한 석면은 적은 양에 폭로되더라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허용기준을 낮춰야 하며, 석면공해 발생원에는 국소배기시설을 설치하고 배출되는 공기는 반드시 여과재에 통과시켜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배출시키는 등의 대책수립이 요망된다 하겠다.